주거위기 가구 복지 서비스 강화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퇴거 위기 놓인 취약계층 위해 희망홀씨 순환형 임대주택 제공

전주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주거지 상실 위기에 봉착한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센터장 오은주)는 임대료를 내지 못해 퇴거 위기에 놓인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희망홀씨 순환형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긴급 임대료나 이사비를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센터는 현재 완산구 4호와 덕진구 6호 등 희망홀씨 긴급 순환임대주택 10호를 운영하고 있다. 긴급 순환임대주택은 보증금과 임대료 없이 공과금만 내면 최대 6개월까지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곳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실직과 소득감소로 강제퇴거 위기가구가 늘면서 순환임대주택 10호가 모두 꽉 찼다. 향후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협의를 통해 LH소유 매입임대주택 및 평화동 영구임대아파트 장기 공실을 무상 제공받아 순환임대주택을 5호~10호 정도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센터는 임대료가 없어 거처 마련이 힘들거나 이사비용이 부족한 경우 체납으로 난방·전기가 단절된 경우에 직면한 취약계층에게 긴급 임대료와 이사비, 주거관리비도 지원하고 있다. 생필품이 없는 경우에는 주거용품도 제공하고 있다. 취약계층 1가구당 70만원 한도로 지급된다.

전주시 주거복지센터는 지난 19일 시민들에게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전주덕진지역자활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센터는 또 전화·내방·방문·이동상담을 통해 주거급여와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 해피하우스 등 전주시 주거복지정책을 안내하고 있다. 여기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지원하고, 라이온스 봉사단체, 전주연탄은행, 꽃밭정이노인복지관,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등 민간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와 관련 센터는 지난 19일 시민들에게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전주덕진지역자활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밖에 주거복지네트워크 23개 단체와는 집수리 지원 등을 협업하고 있다.

오은주 센터장은 "센터는 주거위기에 놓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민간자원과의 연계를 점차 확대해 모든 시민들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팔복예술공장 창작레지던시 3기 입주작가 작품 전시회

전주시, 내달 28일까지 7명 작가 회화·설치·조각 등 예술작품 선보여

방치된 폐산업시설을 재생해 만들어진 팔복예술공장 입주 작가들이 회화, 설치, 조각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작품을 전시한다.

전주시가 지난 22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팔복예술공장에서 '팔복예술공장 창작레지던시 3기 입주작가 작품 전시회'를 연다.

'나는 그리운 바다를 편안한 오늘, 번쩍번쩍 헤엄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김성수 ▲김아라 ▲박경종 ▲서정배 ▲이가립 ▲이소연 ▲최빛나 등 팔복예술공장 창작레지던시에 입주한 7명의 작가들이 회화, 설치, 조각 등 다양한 장르의 개성 있는 예술작품들을 선보이게 된다.

총 작품 수는 76점으로, A동 2층 전시실과 다목적실, 이팝나무홀에서 만나볼 수 있다.

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간당 관람인원을 최대 40명 이내로 제한해 운영한다. 사전예약은 팔복예술공장 홈페이지(palbokart.k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서배원 전주시 문화정책과장은 "이번 작품 전시회를 통해 코로나 블루로 힘들어하는 시민들에게 위로와 여유가 전해져 마음이 치유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예술 작가들간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등 예술인들과 함께 성장하는 예술교육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팔복예술공장 이팝나무 그림책 도서관에서는 세계 희귀 그림책과 팝업북 200년사를 소개하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김윤상 기자

'내 집 주차장 그린파킹 사업' 연중 접수

전주시, 주차공간 부족한 단독주택·노후 공동주택에 주차장 조성비 일부 지원

전주시가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유휴시설이나 담장, 대문 등을 개조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경우 공사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주차공간이 부족한 단독주택과 노후 공동주택 거주민들을 위해 주차장 조성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 집 주차장 그린파킹 사업'을 연중 접수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택건설촉진법 및 건축법에 따라 지난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받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주차공간 부족으로 골목길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단독주택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 내 부대시설과 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등 유휴시설에 대해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건축허가 부서의 용도변경 행위허가를 받아 신청하면 된다. 주차장 1면당 50만원, 최고 20면에 1000만원까지 설치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단독주택 소유자가 담장이나 대문 등을 개조해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적게는 1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전주시 교통안전과(완산구 기린대로 213, 대우빌딩 5층)로 방문하거나 전화(063-281-5021)로 문의하면 된다. 주차장 조성비용은 1회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조성 후 3년 동안은 주차장으로 유지해야 한다. 담장을 쌓거나 타 용도로 전환하면 공사비 전액이 환수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내 집 주차장 그린파킹 사업'으로 총 1,138면의 주차 공간 조성을 지원했다.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도 중요하지만, 주차공간 부족으로 이웃 간 다툼이 일기도 하는 주거지역의 주차장 확충도 필요하다"면서 "그린파킹 사업을 통해 주택가 주차난이 해소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평생학습 기관 프로그램 네트워크 사업' 공모

전주시 평생학습관, 내달 8일까지 우편·이메일 접수

전주시가 시민들에게 폭넓은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프로그램 발굴에 나선다.

전주시 평생학습관은 오늘부터 다음 달 8일까지 '2021년도 평생학습 기관 프로그램 네트워크 사업'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지역 내 평생학습 기관의 학습공간과 인적자원을 활용해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우수 협력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분야는 ▲마을공동체를 통한 코로나블루 극복 프로그램 ▲환경문제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캠페인 등 프로그램 ▲지역의 학습자원을 활용한 특성화 프로그램 ▲기관 연합 상생 네트워크 등 공동체 의식 제고 프로그램 ▲사회적 트렌드 및 지역 주요현안 기반 프로그램 등이다.

지원 자격은 전주에 주소를 둔 평생학습 유관기관 및 단체로, 2개 이상의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도 있다. 단, 1기관 1프로그램 지원이 원칙이며,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아닌 새로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타 기관과 협력하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시는 이번 공모에서 2개의 기관·단체를 선정해 프로그램 당 최대 460만원까지 운영비를 지원키로 했다. 운영비는 강사료, 재료비, 홍보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평생교육기관·단체는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 또는 전주시평생학습관(e.jeonju.go.kr)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덕진구 구층목로 11)이나 이메일(tkagus33@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평생학습관(063-281-5266)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단체의 적격성과 사업수행능력, 사업예산의 적정성, 사업의 파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하고 다음 달 19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우영영 전주시 교육청소년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기관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 평생학습기관 간 공동체 의식 및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전주시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발굴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수사무마 대가 1억 요구' … 검찰, 전직 경찰관 구속기소

수사 무마를 대가로 사건 관계인에 억대의 금품을 요구한 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지난 22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알선수재 등 혐의로 전직 경찰관 A(61)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B경위와 공모해 지난해 10월 특정 사건과 관련된 수사 대상자에게 사건 무마를 대가로 1억원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B경위가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청탁 알선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관련 정황을 포착하고 최근 B경위의 사무실과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확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날 전주지법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B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이번 사안을 두고 조직의 문제가 아닌 '개인적 일탈 행위'라며 선을 그었다.

이후신 전북경찰청 형사과장은 B경위 구속 이후 기자들을 만나 "형사소송법 등의 개정으로 경찰이 주체적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수사관이 사건 관계인에게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매우 유감"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그러면서 "사실 이게 그 직원이 사건 관계인을 사적으로 만나 발생한 문제"라며 "이러한 일탈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